

# 황선홍호, 파리 올림픽 길목서 신태용호와 격돌

인도네시아

###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3전 전승 '기세' 3차전 한일전서 1-0 신승 26일 인도네시아와 8강전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황선홍호가 순항하고 있다.

지난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겸 2024 AFC(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하며 최고의 기세를 자랑하고 있다.

조별리그 B조 1위를 차지한 황선홍호는 오는 26일(한국 시간)부터 토너먼트에 돌입하는데 8강에서 신태용호를 상대로 승리할 경우 최소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1-0 신승을 거뒀다.

앞서 지난 19일 2차전에서 중국에 2-0, 17일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1-0으로 연파했던 황선홍호는 3전 전승(승점 9)을 거두며 B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황선홍 감독은 일본을 상대로 대거 교체팀을 가동했다. 선발 라인업에서 조



황선홍 한국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22일(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둔 뒤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현택을 제외하고 10명을 모두 새 얼굴로 채우며 이미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 지은 만큼 체력을 안배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황선홍호는 조별리그 최종 순위에 관계없이 3일 간격으로 8강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A조에 편성돼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른 개최국 카타르와 인도네

시아는 충분한 휴식이 가능했다.

일본 역시 선발 라인업에서 7명을 새 얼굴로 채우며 로테이션을 가능한 가운데 황선홍호는 수비에 무게감을 두고 경기를 운영했다. 스리백을 내세웠지만 수비 시에는 파이프백 형태로 일본의 공세를 막아냈고 유효슈팅을 한차례도 만들지 못했지만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텼다.

황선홍 감독은 후반 들어 교체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다. 황재원과 김민우, 강상운, 강성진을 차례로 투입했다. 최강민과 김동진, 조현택, 정성빈이 빠져나오며 경기를 마쳤다.

이 승부수가 적중했다. 후반 30분 이대석이 올린 코너킥을 김민우가 가볍게 뛰어올라 이마로 받아 넣으며 균형을 꺾고,

9분의 추가시간까지 24분여를 잘 버텨내며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다.

B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친 황선홍호는 8강에서 A조 2위인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에서 2승 1패(승점 6)를 기록하며 8강에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이후 탄탄한 경기력을 구축했지만 한국은 23세 이하 대표팀 상대 전적에서 5전 전승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를 업고 있는 개최국 카타르를 피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황선홍호는 인도네시아를 꺾을 경우 이번 대회 4위에게 주어지는 파리 올림픽 대륙간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획득해 아프리카 예선 4위인 기니와 맞붙는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 조 추첨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번 대회 우승 팀이 가장 수월한 대진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 준결승 진출에 만족할 수 없다.

이번 대회 우승 팀은 파리 올림픽 D조 조별리그에서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을 만난다. 준우승 팀은 C조에서 스페인,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을 만나고 3위 팀은 B조에서 아르헨티나, 모로코, 우크라이나와 격돌한다. 4위 팀은 기니를 꺾을 경우 A조에서 개최국인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와 맞붙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포기는 없다... 올가을 프로 무대 재도전” 광주 초등부 검도팀, 전국 시·도대항 단체전 준우승

### 광주 출신 원광대 외야수 정영웅 대학야구 U-리그에서 5할 '맹타'

“야구가 너무 좋아 포기할 수 없었죠.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뛰고 있습니다.”

원광대 야구부 정영웅(24·사진)이 2024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야구 U-리그 E조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프로 진출의 꿈을 다지고 있다. 화정초, 무등중, 광주일고, 동강대를 거쳐 원광대에서 활약 중인 그는 마지막 도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원광대 주전 중견수로 테이블세터를 책임지고 있는 정영웅은 올 시즌 네 경기에서 타율 0.500(14타수 7안타)과 3도루로 6타점 3득점을 쌓았다. 또 출루율이 0.611, 장타율이 0.643에 육박해 OPS(출루율+장타율)는 1.254에 이른다.

특히 지난 18일 세한대전에서는 3타수 3안타에 2볼넷까지 얻어내며 전 타석 출루에 성공했고, 두 차례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4타점 1득점을 뽑아 13-3 6회 콜드게임 승을 이끌었다. 이어 19일 동강대전에서도 4타수 2안타 1도루로 2타점 1득점을 이끌어냈고, 팀은 8-2 대승으로 U-리그 E조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원손 타자인 정영웅은 현장에서 공에 배트를 맞는 컨택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빠른 발로 도루와 주루 능력과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수비 능력까지 갖췄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원광대 편입 직후인 2020년에는 제54회 대통령기 전국 대학야구대회에서 타율 0.455(22타수 10안타)로 7타점 7득점을 만들어내는 등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동시에 타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KBO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했으나 낙방해 좌절을 맛봤다. 그럼에도 정영웅은 프로 무대 재도전을 위해 마음을 고쳐먹고 현역으로 군 복무에 임하며 개인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군에서도 배트를 가져가 꾸준히 훈련하며 몸을 만들었던 그는 전역 직후인 올해 U-리그 성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프로 무대 도전에서는 반드시 지명을 받겠다는 각오다.

정영웅은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 잠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야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며 “야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프로에 도전하겠다고 마음먹고 군 복무를 했다.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훈련 중이고 꼭 프로 지명을 받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규빈 기자

### 결승서 전남에 1-2 석패

광주 초등부 검도대표팀이 이충무공탄신기념 제59회 전국시·도대항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초등부 검도대표팀은 지난 20~21일 충남 아산 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전남 초등부 선발팀과 팽팽한 접전 끝에 1-2로 저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 초등부 대표팀은 준결승서 경북 선발팀을 상대로 매치스코어 2-2(포인트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권순현(하백초 6)이 나선 대표전에서 승리하여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 초등부 대표팀은 전남 선발팀과의 결승에서 선봉 이영광(고실초 6)이 김찬휘에게 2-0으로 이겨 기선을 잡았다. 이어 2위 정진오(서일초 6)가 상대 김단우와 1-1로 비기고 중견 허운도(고실초 6)



광주 초등부 검도대표팀이 이충무공탄신기념 제59회 전국시·도대항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검도회 제공

가 상대 손준혁에게 1-2로 저 매치 스코어 1-1 동점이 됐다. 부장 권순현(하백초 6)이 상대 오승현과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광주 초등부 대표팀은 마지막 매치인 주장 송승민(오정초 6)이 상대 선수 연에게 0-1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남태운 광주검도회 전무이사는 “우승하

지 못해 아쉬지만 각 도장에서 열심히 준비해 출전한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값진 은메달을 획득해 만족스럽다”며 “이번 대회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초등부 4연패를 목표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심판 밀친’ 전남드래곤즈 김용환, 5경기 출장 정지

### 제재금 500만원도 부과

전남드래곤즈 김용환이 경기 도중 주심과 상대 선수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5경기 출장 정지와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던 김용환은 징계로 다섯 경기가 추가돼 다음 달 21일 충북청주FC와 하나은행 K리그 2024 14라운드 홈경기까지 나설지 못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2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김용환에 대한 징계

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김용환에게 5경기 출장 정지와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용환은 퇴장에 따라 주어졌던 2경기 출장 정지에 상벌위원회에서 5경기를 추가하면서 총 7경기 출장 정지 수 없게 됐다. 김용환은 다음달 26일 FC안양과 15라운드 원정 경기부터 다시 나설 수 있다.

앞서 김용환은 지난 1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안산그리너스FC와 2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1분 노경호를 상대로 반칙을 범했음에도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김용환이 노경호에게 샷대질을 하며 다가가지 박세진 주심이 둘 사이에 끼여들어 거리를 두게 했으나 이를 밀치며 재차 달려든 뒤 말싸움을 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또 김용환은 경기 종료 후 노경호의 목살을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판 존중은 리그 질서 유지와 건전한 문화 조성에 필수적이다”며 “심판 권위를 부정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규빈 기자